

국가별 동향



**멕시코**

**벨이 고장난 버스 “내리려면 벨 대신 닭”**



‘벨이 고장난 버스’라는 사진 게시물이 네티즌을 폭소케

했다. 최근 해외 유머사이트 ‘나인개그’에 게재된 이 사진에는 버스 하차벨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장난감 닭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. 옆에는 ‘벨이 고장났으니 내리려면 닭을 쥐어짜시오’라는 설명이 자리했다.

이 닭 장난감은 영화 ‘과속 스캔들’에서 황기동 역을 맡은 왕석현 군이 극중에서 갖고 다녔기 때문에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. 닭의 목을 잡아당기거나 몸통을 누르면 커다란 닭울음 소리가 나기 때문에 버스 하차벨로도 제 구실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.

네티즌은 “벨이 고장난 버스라도 이 장난감이 내는 소리면 충분하다”, “버스에서 닭 우는 소리가 나면 웃기겠다”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. [아시아경제]



**중국**

**타조 알 만한 계란, 무게가 무려 200g?**



중국의 한 암탉이 무게 200g에 달하는 대형 계란을 낳았다. 중국 서남부에서는 일

반 계란의 2~3배 크기인 대형 계란이 발견됐다. 이 계란에는 노른자가 두 개 더 들어있는데 다 보통 크기 계란이 하나 더 들어 있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.

이 계란을 낳은 암탉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 닭 주인은 “다른 닭들과는 달리 쌀을 먹었다”며 “그게 큰 계란을 낳는 비결인 것 같다”고 말했다. 네티즌들은 “이 정도의 대형 계란이면 계란말이를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겠다”, “나도 쌀을 먹여 닭을 키워볼까”, “주인의 애정이 대단하다” 등의 반응을 보였다. [SBS]

**계란 흰자 혈압 떨어뜨리는 성분**

계란 흰자위에 혈압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들어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. 중국 지

린 대학 연구팀은 계란 흰자위에 들어 있는 단백질 분자인 펩티드가 혈압강하제 카프토프릴 저용량과 맞먹는 혈압강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영국의 데일리메일 인터넷 판이 보도했다.

고혈압 모델 쥐에 이 펩티드를 투여한 결과 저단위 카프토프릴과 맞먹는 혈압강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. 이 실험에 사용된 흰자위 펩티드는 계란을 삶는 온도보다는 다소 낮은 섭씨 94도로 가열한 것이다.

이 결과는 흰자위 펩티드가 계란 속에 들어 있는 형태든 보충제의 형태든 혈압약의 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. [YTN]



## 미국

### 간식으로 치킨과 도너츠 인기

최근 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간식거리로 치킨과 도너츠가 선정되었다. 둘 다 만만치 않은 열량을 자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기가 대단하다. 한 프렌차이즈 업체에서는 이들 상품을 결합한 세트 제품을 출시하였고 인기는 상상외의 대박을 터뜨렸다.

한 관계자는 “전형적인 미국인들의 간식 두가지를 결합한 세트 제품이라 인기가 상당히 높다. 일반 치킨이나 도너츠보다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가게 문을 열기전부터 줄을 서 구매해 간다”고 했다. [KNN]



## 태국

### 육계 생산량 증가

태국 농림경제청은 작년에 비해 육계 생산량이 2.37% 증가했다고 밝혔다. 농림경제청 Apichart Jongsakul 사무총장은 “국내 소비량과 수출량 증가가 영향을 끼쳤다”고 했다. 현재 태국은 일본으로부터 절단육과 가공육을 수입하는 반면 유럽으로부터는 냉동닭을 수입하고 있다. 지난 해 태국 육계 가격은 평균 kg당 1.4~1.5달러(USD)를 기록했다. [asian-agribiz]



## 인도

### 닭고기, 계란 값 1년 새 두배로 증가



인도 농업부는 닭고기와 계란 가격이 95%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. 농업부 Pawar 부장은 가격 상승의 주요인으로 옥수수, 콩 등 사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재료 가격 상승을 첫번째로 꼽았다.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사료 원재료 관세면제를 실시할 계획이다. [The Poultry Site] 양계